

자료기반 스페인어 구어 담화 분석 및 화행 연구 - 의문문 형식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신 자 영
연세대학교

신자영(2015), 자료기반 스페인어 구어 담화 분석 및 화행 연구 -의문문 형식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초 록 본 연구는 스페인어로 된 9편의 영화를 전산화된 말뭉치(Corpus) 형태로 구축하고, 구축된 스페인어 구어 코퍼스의 12,409개 발화 쌍에서 의문문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의 화행(Speech Act)과 이를 수반하는 다양한 담화상의 요소 및 전략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화행 이론 및 담화 분석 이론, 공손성 이론, 함축 이론 등과 같은 화용론의 주요 이론들에 기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발화들이 구현되는 화행적 실현 양상을 형태와 기능의 상호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의문문은 사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항상 질문의 화행으로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단언, 감탄, 명령, 요청, 제안 등 가장 다양한 유형의 화행으로 구현되는 발화 형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문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화행을 정의하고, 한 유형의 발화 형태가 실제 언어의 사용에서 다양한 유형의 화행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면서, 실제 발화에서 이들 각각 화행이 사용되는 분포 및 빈도를 함께 연구하여, 자료 기반 귀납적 연구를 통하여 스페인어의 구체적인 언어수행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스페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어 화행, 의문문, 공손성, 질문, 수사의문문, 지시적 화행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127).

I. 들어가기

최근 스페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과 이에 기초가 되는 언어 수행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언어 수행(Performance)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언어 수행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스페인어의 현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 문법 연구에서는 모두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언어 수행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언어 이론에 대한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 언어 자료, 특히 구어 자료에 기반하여 이를 분류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언어 현상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귀납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구어 자료를 전산화된 말뭉치(Corpus)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화행(Speech Act)과 이를 수반하는 다양한 담화상의 요소 및 전략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화행 이론 및 담화 분석 이론, 공손성 이론, 함축이론 등과 같은 화용론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한 12,409 개의 대화 쌍으로 이루어진 스페인어 구어 코퍼스를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발화들이 구현되는 화행적 실현 양상을 형태와 기능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의문문은 사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항상 질문의 화행으로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다양한 유형의 화행으로 구현되는 발화 형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문문이 나타내는 다양한 화행을 정의하고, 한 유형의 발화 형태가 실제 언어의 사용에서 다양한 유형의 화행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원리를 함축이론 및 공손성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언어 현상에서 형식과 기능의 상호 대응 관계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자료 선정

스페인어의 담화 분석 및 화행 연구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루어진 구어 코퍼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구축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페인어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녹음, 전사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막이 있는 컴퓨터 화일 형태로 구입 가능한 스페인어권 영상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개인이 구축하는 소규모 자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균형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언어 변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등질적인 장르의 자료를 모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역 간 언어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페인에서 제작된 영화로 한정하고, 현대극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어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많이 나오는 영화로 한정하였다. 또한 자막으로 나오는 한국어 자료도 스페인어와 나란히 정렬하여 서-한 병렬코퍼스 형태로 구축하여 추후 스페인어-한국어 대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다음 <표 1>은 스페인어 구어 담화 및 화행 연구의 자료로 구축한 영화 목록

<표 1> 스페인어 구어 자료 목록

외국어제목	한국어제목 (제작년도)	제작 국가	시간 (분)	발화수
Todo sobre mi madre	내 어머니의 모든 것 (1999)	스페인	105	1,375
Hable con ella	그녀에게 (2002)	스페인	112	1,058
Volver	귀향 (2006)	스페인	120	1,613
El laberinto del Fauno	판의 미로 (2006)	스페인/멕시코/미국	113	1,846
Los abrazos rotos	브로큰 임브레이스 (2010)	스페인	127	1,576
El camino de los ingleses	춤추는 나의 베아트리체 (2006)	스페인	118	1,100
La mala educación	나쁜 교육 (2004)	스페인	104	1,206
La lengua de Mariposa	마리포사 (2001)	스페인	95	786
Fuera de carta	산타렐라 패밀리 (2009)	스페인	108	1,849
총 계				12,409

록이다.

2. 자료 구축 방법

코퍼스의 텍스트 입력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자 텍스트를 직접 입수하여 양식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과 종이 자료를 획득한 후 전산 입력을 통하여 전자화 하는 방법이다. 영화의 경우 웹상으로 영화 대본을 pdf나 text파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영화에서의 대사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한국어 자막²⁾은 자막 내려 받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동 수집의 경우 입력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필요한 형식이나 오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교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 구축을 위하여 영화를 보면서 일일이 전사를 하는 키보드 입력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고, 작업자의 듣기 능력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정확도가 가장 높은 전사 방법으로 고려되어 채택하였다. 또한,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공동으로 교체 검토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때 일차적으로 수집된 원시 텍스트는 한국어와 문장 대응 작업을 하기 전에 키보드 입력 시 발생한 단순 철자 오류 및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고, 엔터, 탭 등의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하고 폰트를 통일하는 전처리 과정을 하였다. 또한, 모든 텍스트에 대하여 영화 제목, 음성 전사한 작업자명, 작업한 날짜, 문장 일련 번호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록하였다.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대화자의 말차례가 바뀌는 것(Turn-taking)을 기준으로 하여 텍스트 단위로 분

-
- 1) 영화 자막이라는 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략된 많은 한국어 대응 표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 원본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난 명백한 번역 오류는 수작업으로 대부분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 2) 한국어 자막은 개인에 의하여 번역된 다양한 버전이 있으나, 되도록이면 정식으로 개봉된 영화에서의 자막 번역과 동일한 DVD 버전의 자막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문 번역가에 의하여 번역되어 번역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표 2〉 자료 excel 기술 예시

제목	작성일자	작성일	크리닉스 유형	공간 별칭	스페인어 문본	원문어 대역	수 정 인	그 밖 의 차 이 점 유형	표 준 의 공 공 표 준 문 자 집 합 (성 별 표 지 역 의 나이 정 치 정 교 대 표 준 의 단 위 제 요 소)	결 구 (A) 필 속	장 간	장 간 유 형	장 간 유 형 분 류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2	Anda, ve a bañarte.	자. 이제 씻어자	11	오형	여자, 정다, 딸, 친부관계, 방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3	¡Olella!	오렐리아?	11	포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4	¡Olella!	오렐리아	11	포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5	Deprisa.	(성폭행)	11	오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6	Te quiero ver el vestido puesto.	네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어서 보고	11	오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7	Quiero que estés preciosa cuando te enamoras conmigo.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게 보였어	11	오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8	Pasarás una princesa.	넌 공주님 될 거야	11	장간				장간	대상 자체 평가	1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89	¡Una princesa!	공주?	11	장간				장간	대상 자체 평가	1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0	Esas gallinas bien limpias.	우리가 닭고기 깨끗한지 잘 확인하세요	11	오형	여자, 하녀,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1	Estás preciosa, niña, preciosa	너의 아가씨 정말 예쁘구나	11	오형	정, 여자,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2	¡Menudo vestido!	정 멋진 드레스야	11	장간						
Todo sobre	다수형	2013.10.23	서-관 SK 7893	Anda... anda... a trabajar, que estás tan sucia.	가서 일하! 너는 더럽다! 빨리 씻어라!	11	오형	여자, 하녀,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4	¡Quieres un poco de leche con miel!	꿀 한 숟가락 마시겠어?	11	오형	여자, 하녀,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5	*** no te vayas a salpicar.	@@@@ Coméntame cómo te va a salir.	11	오형	정, 여자, 하녀,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6	Mercedes.	메르세데스	11	오형	정, 여자, 하녀, 딸, 친부관계, 부엌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7	¡Tu crees en las hadas?	어름마는 오랑을 믿으세요?	11	포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8	¡Ya no.	아니	11	포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899	pero cuando era muy niña, sí...	하지만 나도 어릴 땐 믿어	11	포형						
El laberinto	정다인	2013.10.23	서-관 SK 7900	Entonces yo creí... a en muchas cosas.	그러면 그때 나는 그것들을 믿어	11	포형						

〈표 3〉 스페인어 구어 자료의 의문문 화용, 담화 분석 주석 예시

영화제목	기출자	날짜	코퍼스유형	스페인어 원문	의문문 화용유형	2차적 특징	S-K대응	회자/정자 정보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Echale piedras al jarrón, que se cae, Paula.		요청	1:1	Raimunda(여,30대초반)와 Paula(여,10대), 엄마와 딸, 공동모집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Viento de los cojones!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Dale bien a las letras, que brillen.		요청	1:1	Soledad(동생,30대초반)과 Raimunda(언니,30대초반), 자매, 공동모집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 Vas a meter algo más, mamá?	질문	호칭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Esta es la Paula?	놀람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Cómo estás?	인사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quién da culpa cuidarla.	수사	정관용대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Oye, ¿y Paco?	질문		1:1	ND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Mamá, ¿es verdad que la Agustina viene a arreglar su propia tumba?	확인	호칭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Quién es?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Tú sé carifosa con la tía, eh? No te rías en su cara.	확인	요청	1:1	Raimunda(여,30대초반)와 Paula(여,10대), 엄마와 딸, Paule이모집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Cómo está, tía?	인사	호칭	1:1	NA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Es que ya has dado a luz?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Y éstas quiénes son?	질문		1:1	ND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Quiénes van a ser?	비난	합속	1:1	Raimunda(여,30대초반)과Paula(여,60대),조카와이모,Paule이모집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Vamos al comedor?	제안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No le importa que la quite, verdad?	허락	요청	1:1	Raimunda(여,30대초반)과Paula(여,60대),조카와이모,Paule이모집(TV에서화제)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 Y yo a qué he venido aquí?	자신에게 하는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A hablar?	자신에게 하는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A por algo de comer?	자신에게 하는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Bueno, ¿qué tal en el cementerio?	질문		1:1	
Volver	정민영	2013.12.01	서-한 SK	¿Habéis fregoteado bien la lápida?	질문		1:1	

리하여, 대화 단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대화 단위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문장의 구분은 @@ 기호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텍스트는 텍스트 고유 번호와 문장 일련번호를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화자 정보(성별, 나이,³⁾ 직업, 관계), 대화의 장소 등도 연구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설 부분과 대화 부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의 각 대화의 단위를 입력하고 담화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엑셀의 각각의 칸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료 입력의 샘플을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코퍼스는 화용, 담화 연구를 위한 것이므로 구축된 코퍼스에서 화용, 담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주석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다음 <표 2>, <표 3>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담화표지사, 화행, 함축, 호칭 등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에 각각 표지를 주어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식상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발화를 추출하고 이들이 문맥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 화행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409 대화쌍에서 추출한 1,962개의 의문문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순수한 질문의 화행으로 사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화행을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III. 화행 이론 및 공손성의 원리

1. 언어의 기능과 형태: 화행의 개념과 종류

‘화행(Speech Act)’의 개념은 현대 언어학에서 화용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이론으로 화용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통사론의 연구 대상은 문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의 구조나 문법과 같은 모

3)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략의 나이(c로 표시)를 기술한다.

형화된 문장 단위이며, 이러한 문장 가운데 존재하는 추상적 규칙 체계를 밝히는 것이 그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용론의 연구대상은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인 문맥 안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단위인 발화(utterance)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발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현상을 규정한 최초의 학자가 영국의 언어철학자인 오스틴(J. L. Austin, 1911-1960)이다. Austin(1962)은 언어를 ‘행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언어적 발화는 결국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단언, 약속, 협박, 요청, 사과와 같은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언어의 진술은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확인 발화가 아니며, 문법이나 어휘에서 나타난 내포적 의미를 넘어 외연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 수반력은 문장 혹은 언어 표현에 의하면 구현될 수도 있지만, 화자, 청자를 포함하여 문맥적으로 매우 민감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Siéntate!”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행위인 것이다. 우선 말하는 행위 자체와, 말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앉도록 요구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앉게 되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Austin은 이렇게 하나의 발화를 각각 ‘발화 행위(locution),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 발화효과(perlocution) 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화행론의 중심 연구는 발화수반 행위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화수반 행위는 화자가 언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며, 언어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행위는 이 발화수반 행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Searle(1976)은 Austin의 분류법을 좀 더 체계화시켜 화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제시 화행(representative)은 화자가 발화하는 명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리는 화행이고, 지시 화행(directive)은 화자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할 때 쓰이는 화행이다. 위임 화행(commissive)은 화자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청자가 인식하게끔 하는 화행이고, 정표 화행(expressive)은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청자

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며, 선언 화행(declaration)은 특정한 제도적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화행을 일컫는다. 화행을 통하여 구현되는 발화수반력은 문장 혹은 언어 표현뿐 아니라 문맥적으로 매우 민감한 요소들을 통하여 구현되므로, 이전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주목한 언어의 규칙성이나 구조보다는 언어의 사용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언어의 기능 및 각 화행을 이루는 적절성의 조건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특정 화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화자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며,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화행이 실행되어 청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Searle은 이를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 1969, 78)이라고 규정하였다. 적정조건은 명제내용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언어의 형식과 기능의 관계는 다양하며, 특정 기능 즉, 특정 화행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표현 형식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예 (1)은 문장의 유형에 따른 전형적인 화행의 대응을 보인 것이다.

- (1) a. Te callas. 선언
- b. ¿Te callas? 질문
- c. ¡Cállate! 명령/요청
- d. ¡Te callas! 감탄

그러나 하나의 발화는 주어진 문맥과 이를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화행으로 구현 가능하다. 다음 예(2)에서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발화가 다양한 기능, 즉, 화행으로 구현되는 형식과 기능의 불일치의 예를 볼 수 있다.

- (2) a. Me he quedado sin dinero. (단언)
- b. A: ¿Me invitas?
 B: Me he quedado sin dinero. (거절)
- c. A: Me he quedado sin dinero. (요청)
 B: Yo te presto.

(2)에서는 평서문의 예를 들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의문문이라는 동일한 형식의 발화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간접 화행

발화가 발화수반행위로 구현되는 방법에는 직접 화행(direct speech act),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 반간접/반직접 화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 화행은 발화가 나타내는 화행 혹은 의사소통 기능이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명제내용과 표현방식이 일치하므로, 발화수반력이 수행 동사나 기타 문법적, 어휘적 기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가령 요청의 화행이 “¡Cállate!”, “Te pido que te calles.”에서와 같이 스페인어의 명령형이나 수행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 직접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간접화행은 화자의 발화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돌려 말하는 형식의 화행을 말한다(Levinson 1983, 263). 반간접/반직접 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중간적 형태로 부사나 기타 화법 등을 이용하여 공손하게 표현하는 형태이다.

(3) 방의 창문을 닫아달라고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

a. 직접화행: Te pido que cierres la ventana.

Cierra la ventana, por favor.

b. 간접화행: Tengo frío.

c. 반간접/반직접 화행: ¿Puedes cerrar la ventana?

¿Te importa cerrar la ventana?

직접 화행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지만 간접 화행은 완곡하고 암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므로 직접 화행보다 간접 화행이 행위를 수행할 때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정한 화행을 규정하는 것은 표현 그 자체보다는 특정 발화에 포함된 문맥상의 조건들이다. 화자의 발화수반 의도(illocutionary intention)에 대하여 청자는 이 발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IV. 스페인어 의문문과 질문의 화행

일반적으로 의문문 형식으로 구현된 발화는 ‘질문’의 화행을 나타낸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화용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의문문은 가장 다양한 유형의 화행을 나타내는 발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문이 질문의 화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 수반 의도가 질문의 화행의 적정조건과 일치해야만 한다. 본 장에서는 구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스페인어의 의문문을 질문 화행의 적정조건을 통하여 순수한 질문과 그 밖의 화행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 화행의 의미와 실현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의문문과 질문 화행

스페인 한림원 문법(2010)⁴)에서도 전통적으로 모든 발화는 *dictum*과 *modus* 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dictum*은 발화의 명제 내용을 뜻하며, *modus*는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modus*의 개념은 현대 언어학에서 조어법(modality)의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스페인어의 의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모든 의문문이 *dictum*과 *modus* 두 가지 요소에서 “질문의 화행”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 한림원 문법(Gramática de RAE 2010)에서는 특정한 문장 혹은 발화의 유형은 전형적으로 대응되는 화행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질문이라는 화행 혹은 기능은 전형적으로 의문문이라는 발화 혹은 문장의 형태로 대응되지만 이러한 관계가 상호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의문문 형식의 발화가 질문의 화행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scandell(1988)에 의하면, 스페인어의 형태적 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한림원문법(Gramática de Real Academia Española, 이하 Gramática de RAE로 표시), 42장.

(4) 의문문의 기능 유형 Escandell Vidal(1988)

- a. 순수한 질문(interrogativa directa)
- b. 의도된 의문문(interrogativa orientada): 단언, 수사어문문, 감탄문 등
- c. 지시적 의문문(interrogativa directiva): 명령, 제안, 권유, 요청 등

순수한 질문(interrogativa directa)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행위로 의문문 형태가 ‘순수한 질문’으로 분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5)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

- a. 예비조건: 화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
 화자가 물어보지 않아도 청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 모두 분명하지 않다.
- b. 성실조건: 화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화자는 청자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c. 필수 조건: 화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어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의문문이 형식으로 구현되는 발화를 분석하였는데 총 12409개의 대화 쌍에서 출현한 의문문은 1,962개였으며, 그중 43%에 해당하는 835개의 발화가 (5)에서 제시된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을 만족하여 순수한 질문 화행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1,127개의 발화는 (5)의 적정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그 기능과 적정조건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화행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다음 <표 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구현되는 화행의 유형이다.

질문 화행의 하위 유형 중에는 질문 화행의 적정조건을 일부만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험이라는 특정 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질문이다. 이 경우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5)의 예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험에서의 질문의 목적은 청자가 답을 알고 있는지를 화자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란 점에서 순수한 질문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Cómo acabar con la guerra en el mundo?”, “¿Por qué hay guerra?”

<표 4>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화행의 유형

화행의 종류	하위 유형	예 문
질문 (PG)	① 순수한 질문	¿Dónde vives?
	② 시험의 질문	¿Cuál es cinco por cinco?
	③ 자신에게 하는 질문	¿Qué iba a decir?
	④ 문제 제기	¿Cómo acabar la guerra?
	⑤ 확인을 위한 질문(꼬리 의문문 포함)	¿De verdad no quieres que te ayude?
감탄 (EX)	① 놀람	¿Que te dejado Paco?
	② 비난	¿Por qué no me has cogido el teléfono?
	③ 칭찬	¿Has visto qué guapa la Paula?
단언 (AF)	① 강한 주장 (수사 의문문)	¿Cómo lo voy a recordar?
지시 (DR)	① 요청	¿Me das fuego?
	② 제안	¿Entramos?
	③ 권유	¿Por qué no ves al médico?
	④ 제공	¿Te doy agua?
	⑤ 허락	¿Puedo pasar?
	⑥ 명령	¿Por qué no te callas de una vez?
인사 (SA)	① 안부 묻기	¿Qué tal?

와 같은 질문에서 화자는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성실조건의 위배이다. 이러한 질문 유형은 ‘문제 제기 질문’ (problematic questions) 이라고 규정한다.

그밖에도 “¿Dónde he puesto las llaves?”, “¿Qué iba a decir?”, “¿Qué haremos después?”와 같은 의문문에서는 질문을 하는 상대가 청자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필수조건의 위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코퍼스에서 찾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의 예이다. 주어는 1인칭 단수 혹은 복수일 수 있다.

(6) 자신에게 하는 질문

- a. Dios mío, ¿dónde habrá ido esta chica? (Todo sobre mi madre)
- b. Huma, ¿qué hacemos? (Todo sobre mi madre)
- c. ¿Y qué le digo? (Todo sobre mi madre)
- d. ¿Y yo a qué he venido aquí?@@@¿A hablar?@@@Ah, por algo de comer?
(Volver)
- e. ¿Y qué pasará conmigo? (Los abrazos rotos)

- f. ¿Qué hacemos ahora? (Todo sobre mi madre)
- g. ¿Dónde iría de madrugada y con ese frío? (La mala educación)
- h. ¿Qué haremos después? (La mala educación)
- i. ¿De qué se ríen estos cabezones?(La mala educación)

화자가 질문의 예비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화자가 완전히 모르는 내용은 아니나, 명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하는 질문으로 화자가 이미 앞서 언급한 명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한 확인 질문(confirmative questions)이다. 확인 의문문은 ¿no?, ¿verdad?, ¿ves?, ¿oíste?, ¿entiendes?, ¿eh?, ¿En qué quedamos?, ¿No es cierto?, ¿Viste?, ¿De verdad?와 같은 표현이 추가되어 꼬리의문문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다음은 확인 질문의 예시이다.

(7) 확인 질문

- a. A: Mamá, ¿es verdad que la Agustina viene a arreglar su propia tumba?
 B: Sí, aquí es costumbre. (Volver)
- b. A: ¿No le importa que la quite, verdad?
 B: No, si yo no la veo. (Volver)
- c. A: Por tu hermana sabemos que vuestra madre os tuvo de soltera, ¿verdad que sí?
 B: Sí. Mi madre es que... era hippie. (Volver)
- d. A: ¿Es cierto que habías dejado a papá?
 B: Sí. (Volver)
- e. A: ¿De verdad no quieres que te ayude?
 B: No, no. (Los abrazos rotos)

확인 질문은 화행의 관점으로 보면 질문과 단언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 질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구하는 행위인가 혹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본인이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단언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요청적 행위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7)에서도 모든 경우에 청자의 대답은 화자가 의도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대답의 명제 집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화자가 단언적 태도를 부각시켜 말하는 상황이라면 청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긍정적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8)과 같은 상황에서 청자는 명제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의 대답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 A: Un fin de semana, solos tú y yo en la casa de Ibiza, ¿no?

B: Los fines de semana ensayamos. (Los abrazos rotos)

Lyons는 질문 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알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Lyons 1977, 753). 스페인어의 꼬리의문은 부가되는 요소에 따라 화자가 긍정적 대답을 항상 기대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완전히 단언적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확인 의문문은 질문의 화행과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의 화행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문맥을 통하여 대화상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화자의 질문을 반복해서 말하는 메아리 질문(echo question)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확인의 화행과 더불어 놀람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9)

a. A: ¿Usted cree que se gustan?

B: ¿Que si cree que se gustan? (확인)

C: ¿Yo? (확인/놀람)

Yo no sé nada, yo solo miro los labios. (Los abrazos rotos)

b. A: ¿A ti el cerdo te costó diez?

B: Diez con ochenta.

A: ¿Diez con ochenta? (확인) (Volver)

c. A: Y ahora que Paco nos ha dejado, pues...fjate.

B: ¿Que te ha dejado Paco? (확인/놀람) (Volver)

d. A: ¿Por qué no volvemos? (제안)

B: ¿Ahora? (확인/놀람) (Volver)

e. A: Espero que el tercer Esteban sea para ti el definitivo.

B: ¿El tercer Esteban? (확인/놀람) (Todo sobre mi madre)

(9)의 예문에서처럼 확인과 함께 놀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의 기능도 함께 있는 경우도 다수 관찰된다.

2. 의문문과 감탄 화행

감탄 의문문(exclamative question)은 앞서 말한 단언에 대하여, 놀람, 칭찬, 비난 등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질문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나 놀라운 사실 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므로 일종의 정표 화행(expressive speech act)로 볼 수 있다. (10)a의 의문문은 (10)b에서처럼 감탄문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물론 확인 질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는 억양이나 담화상의 여러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⁵⁾

(10) a. ¿Todavía no ha llegado?

b. ¡Todavía no ha llegado! (놀람)

(11)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 의문문

a. A: Y ahora que Paco nos ha dejado, pues...ffjate.

B: ¿Que te ha dejado Paco? (놀람)

b. A: Si no le importa, prefiero que los cuadernos duerman aquí.

B: ¿Que duerman? (확인/놀람)

c. A: Pregúntaselo a tu madre.

B: ¿A mi madre? (Volver) (확인/놀람)

d. A: Está seco.

B: ¿Y tú como lo sabes? (Volver) (놀람)

e. A: Hemos ido a ver a un director de cine, para hacer una prueba.

B: ¿Una prueba? (Los abrazos rotos) (놀람)

f. A: ¿Os pasáis el día ensayando? (놀람)

B: ¡Hombre, así es como se hace una película! (Los abrazos rotos)

5) Ortografía(2010)에 의하면 의문문이 놀람, 비난 등과 같은 감탄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문부호와 감탄 부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a) ¿¡Qué estás diciendo!?

b) ¡¿Qué estás diciendo?!

놀람의 경우 “¿Ignacio?, ¿Tanto?, ¿Y eso?, Entonces, ¿me voy?, ¿La visita?, ¿Una carta?, ¿Cómo?, ¿Qué pasa?, ¿Tú?”와 앞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 놀람의 초점(focus)이 되는 부분만을 메아리 질문 형태로 짧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메아리 질문의 경우 놀람 이외에도 확인과 비난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12) 비난을 표현하는 감탄 의문문

- a. A: Si me pasara algo.
- B: ¡¿Qué va a pasar?! (비난)
- b. ¿En qué mundo crees que vives, Rosa?
- c. ¿Entonces por qué no me has cogido el teléfono?
- d. Ay, ¿Por qué te has traído esta ropa, Sole?
- e. ¿Cómo te atreves a traer una puta a casa?
- f. ¿Por qué me mentisteis? ¿Alquilarte una habitación?, ¿para qué?
- g. ¿Por quién me tomas?
- h. ¿En qué quedamos?
- i. ¿Quién te ha enseñado hablar así?⁶⁾
(Todo sobre mi madre)
- j. Bueno, y tú, ¿dónde vas así con esas pintas? (Fuera de la carta)

(13) 칭찬을 표현하는 감탄 의문문

- a. ¿Has visto qué guapa la Paula? (Volver)
- b. ¿Quién es ese chico tan guapo? (Todo sobre mi madre)⁷⁾

의문문을 통하여 표현되는 감탄은 화자의 의도를 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정도 부사와 같은 추가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흥미로운 것은 감탄 의문문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화자가 당황하거나 비난의 문맥

6) 질문과 비난의 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Y tú quién coño eres?”와 같이 비속어와 함께 쓰이는 질문 화행의 예가 그렇다.
7) 상대방의 호의나 수고에 대하여 반응으로 사용되는 “¿Para qué te has molestado?” 표면적으로는 비난/질책으로 보이나 실제 기능을 보면 호의에 대한 감탄이나 감사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의문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칭찬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코퍼스상 총 212개의 비난 의문문이 나타난 것에 비하여 칭찬의 경우는 총 6회로 비난의 비율을 97%로 보았을 때에 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인 것이다.

3. 의문문과 단언: 수사적의문문

수사적의문문(rhetoric question)에서 화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발화 내용과 반대 내용에 대하여 강한 단언을 표현한다. 따라서 수사적의문문은 중립적 질문으로 화자는 이미 기대하는 답이 있고 청자에게 명제내용을 받아들일도록 하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언’으로 분류된다. 수사적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형태적으로 부정 의문문이 강한 긍정 단언을 의미하고, 긍정 의문문은 강한 부정 단언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14) 수사적의문문의 의미

- a. ¿No tienes hambre? → Tienes hambre.
- b. ¿Cómo lo voy a recordar? → No lo recuerdo.
- c. ¿No es un niño precioso? → Es un niño precioso.
- d. ¿No crees que ha jugado sucio con nosotros? → Ha jugado sucio con nosotros.
- e. ¿No debemos ayudar a nuestros amigos? → Debemos ayudar a nuestros amigos.
- f. ¿Quién puede desear ir a la cárcel? → Nadie puede desear ir a la cárcel.

(15) 코퍼스의 수사적의문문 예시

- a. Pero una mujer separada ¿con quién va a estar mejor que con su madre?
(Volver) → 엄마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의미
- b. A: Solo estás un poco hinchada nada más.
B: ¿Un poco hinchada? (Todo sobre mi madre.)
→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는 의미
- c. ¿Dónde voy yo con ese careto? (Todo sobre mi madre.)
→ 이 얼굴로는 아무데도 못 간다는 의미
- d. ¿Dónde se habrá visto una mujer calva? (Todo sobre mi madre)

- 대머리 여자는 못 봤을 거라는 의미
- e. ¿Tú crees que te compensa? ¡Pues, no te compensa!
-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

수사의문문에서 화자는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는 화자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강력한 설득력을 전달하기 위한 간접화행의 한 방법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코퍼스에서는 91개의 수사의문문이 출현하였으면 백분율로는 5%에 해당한다.

황원미(2014)는 수사의문문을 ‘상반된 극성을 지닌 단언’을 전달하는 의미적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화자는 명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언을 택하지 않고 ‘상반된 극성’이라는 기능을 가진 수사의문문을 통하여 간접화행으로 자신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주장을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경자(2003)는 화자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단언의 날카로움을 피해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라도 강력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대화상대자에 대한 체면 위협을 완화시켜 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공손성을 지키는 일종의 협동 전략으로 보았다. 명시적으로는 순수 의문문과 동일한 구조에서 함축 효과라는 과정을 거쳐 화자의 주장이 전달된다고 하였다.

김종현(2004)은 질문이 아닌 의문문을 특수의문문으로 분류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수사의문문의 해석은 주어진 사실명제로부터 추론되는 정보에 기인하여 고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며, 이러한 고정적 해석은 언어외적 지식의 전형성(stereo-typicality)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No tienes hambre?”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언어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전형적인 지식에 의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당연하게 추론되는 정보가 반대 극성을 가지는 “Tienes hambre.”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 추론 가능성에 의하여 의문문의 고유 속성이 질문화행이 증화되면서 단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4. 의문문과 지시적 화행

지시적 화행은 화자가 청자의 행동 변화와 수행을 요구하는 언표내적 행위이다. 지시적 화행은 각각의 화행을 구성하는 적정 조건의 차이에 따라 명령, 요청, 제안, 권고, 허락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지시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청 화행은 화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언표내적 행위이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부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요청을 받은 청자에게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인 비용이 필요한 행위이고, 행위의 결과는 화자에게 이익이 된다. 일반적으로 요청 화행은 발화 수반력을 동반하며,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고 그 요청 행위의 수행여부는 전적으로 청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발화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요청의 공손 전략 및 언어 변이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의문문 형식을 빌리는 것이다. 특정 발화가 요청 화행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6) 요청 화행의 적정조건

- a. 명제 내용: 미래에 있을 청자의 어떤 행위(A)
- b. 예비 조건: 화자는 청자가 그 행위(A)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자에게 요구되는 행위(A)는 화자에게 도움이 된다.
행위(A)의 수행 여부는 청자에게 달려 있다.
- c. 성실 조건: 화자는 청자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 d. 본질 조건: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 자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음의 (17)에서의 예문은 (16)의 적정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요청 화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17) 요청 의문문

- a. A: ¿Me das los datos? (요청)
- B: No los tengo, es el hijo de Manuela. (Todo sobre mi madre)

- b. ¿Me dejas pasar al baño? (Los abrazos rotos)
- c. Lena, ¿le importa venir a mi despacho? (Los abrazos rotos)
- d. ¿Quieres decirme de una vez a qué has venido? (La mala educación)
- e. ¿Te importa conducir? (La mala educación)
- f. ¿Entonces qué? ¿Me enseñas? (La mala educación)
- g. Entonces, ¿me haces una prueba? (La mala educación)
- h. ¿Perdón? (La mala educación)⁸⁾
- i. ¿Me das los datos? (Todo sobre mi madre)
- j. Manuela, ¿te gustaría trabajar conmigo? (Todo sobre mi madre)
- k. ¿Ya no puedes esperar al final? (Todo sobre mi madre)
- l. ¿No me harías una mamada? (Todo sobre mi madre)

요청과 유사한 화행으로 ‘명령’을 들 수 있는데, 명령의 경우 화자의 대화상의 위치가 사회적, 물리적으로 청자보다 높아서 심리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으며, 청자가 그 행위를 꼭 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청은 청자의 의지에 따라 수락 혹은 거절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나, 명령은 화자의 권위에 의하여 그렇지 못하다. 명령 화행은 청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청자 중심의 화행이라 볼 수 있다. 명령은 형태적으로 명령형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18) 명령 의문문

- a. ¿Por qué no te callas de una vez? 조용히 해. (La mala educación)
- b. ¿Ves? 이것 봐. (=¡Ve!) (Todo sobre mi madre)
- c. ¿No me vas a contar nada? 나에게 뭐라도 좀 얘기해 봐. (Volver)
- d. ¿Podéis callaros un ratito? 너희들 조용히 해! (El camino de los ingleses)
- e. ¿No me tendrás envidia, no? 나를 부러워하지 마. (El camino de los ingleses)
- f. Pero, tú, ¿estás oyendo? 좀 들어봐. (Fuera de carta)

8) 대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에 사용하는 ¿Perdón? 과 같은 표현도, 상대방에게 화자가 이해를 못했음을 알리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요청’ 화행의 일종으로 보았다.

또한, 제공(offer)은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화자가 하도록 하는 화행이다. 청자는 비록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라도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19) 제공 의문문

- a. A: Oye, ¿quieres una puntita de “cristal”? (제공)
B: Paso.@@Necesito dormir de vez en cuando. (Los abrazos rotos)
- b. A: ¿Puedo ayudarla? (제공)
B: No hace falta. Gracias.
- c. A: ¿Quieres un poquito? (제공)
B: No, no, no, no. (Volver)
- d. A: A ver, un poquito de carne de cerdo, ¿quién quiere? (제공)
B: Buenísima. (Volver)
- e. ¿Te la caliento? (El camino de los ingleses)
- f. ¿La quieres conocer? (El camino de los ingleses)
- g. ¿Quieres cuento? (Fuera de carta)

이와 유사하게 권유(recommendation)는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의 행동을 청자가 하도록 화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20) 권유 의문문

- a. Oye, ¿por qué no la acercas? (La lengua de mariposa)
- b. ¿No te vendría bien descansar un poco? (El camino de los ingleses)
- c. ¿Por qué no te llevas el paraguas? (Todo sobre mi madre)
- d. ¿Por qué no ingresas a Nina en una clínica? (Volver)
- e. ¿No venís? (El camino de los ingleses)
- f. ¿Qué pasa, abuelito? ¿no te gusta la sopa? (Fuera de carta)

‘허락’의 화행은 화자의 미래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자이다.

(21) 허락 의문문

- a. A: ¿Puedo pasar ya, tía?
B: Sí, hija, sí. (Volver)
- b. ¿No le importa que la quite, verdad? (Volver)

- c. ¿Molesto? (Todo sobre mi madre)
- d. ¿Te interrumpimos? (Todo sobre mi madre)
- e. ¿Podemos hablar? (Todo sobre mi madre)
- f. ¿Le molestamos? (El camino de los ingleses)
- g. ¿Las mando con mis padres? (Fuera de carta)

제안(suggestion) 화행은 화자가 요구하는 반응이 화자와 청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는 친교를 목적으로 부담과 강제성을 주지 않는 일을 제시한다. 청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청자에게 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제안의 결과 행위의 이익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있다. 다음은 제안 화행에 대한 적정조건이다.

(22) 제안 화행의 적정조건

명제 내용: 미래에 있을 청자와 화자의 어떤 행위(A)

예비 조건: 화자는 청자가 그 행위(A)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자에게 요구되는 행위(A)는 청자에게 도움이 된다.

행위(A)의 수행 여부는 청자에게 달려 있다.

성실 조건: 화자는 청자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본질 조건: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 자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식한다.

(23)의 예문들은 (22)의 적정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제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3) 제안 의문문

- a. ¿Por qué no volvemos? (Volver)
- b. ¿Nos vamos? (Volver)
- c. ¿Nos movemos? (Todo sobre mi madre)
- d. ¿Comemos algo? (Volver)

일반적으로 지시적 의문문에서 “por qué no~”는 논증이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며, 부정문으로 구현되지만 화자가 바라는 것은 긍정적인 명제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의문문의 다양한 화행 실현의 유형 이외에도 “¿Qué hay?”,

〈표 5〉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화행의 빈도 및 분포

질문	자신에게 하는 질문	문제 제기	확인	놀람	비난	칭찬	수사 의문문	요청	제안	권유	제공	허락	명령	인사	전화	기타	총계
835	17	2	310	123	212	6	91	71	32	14	60	43	6	59	22	59	1,962
43%	1%	0.1%	16%	6%	11%	0.3%	5%	4%	2%	1%	3%	2%	0.3%	3%	1%	3%	100%

“¿Qué tal?”과 같은 표현은 인사의 화행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타 전화 받는 상황과 같이 특정한 문맥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Diga?”, “¿Sí?”⁹⁾와 같은 표현도 별도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V. 의문문으로 구현되는 화행의 빈도 및 분포

본 연구에서는 총 12,409 개의 대화쌍을 분석하여 이중 나타나는 1,962개의 의문문을 분석하였다. 이 의문문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VI. 간접화행과 공손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화행이 전형적인 표현 형식, 즉,

9) “¿Sí?”의 경우 전화대화 뿐만 아니라 일반 대화상에서도 상대방의 부르는 데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10) 그밖에도 ¿eh? 가 들어간 발화에서 요청이나 명령과 같은 지시적 화행과 같이 쓰여 이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때 eh는 ¿vale?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이다. 요청과 함께 쓰이는 ¿eh?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No, no te rías, ¿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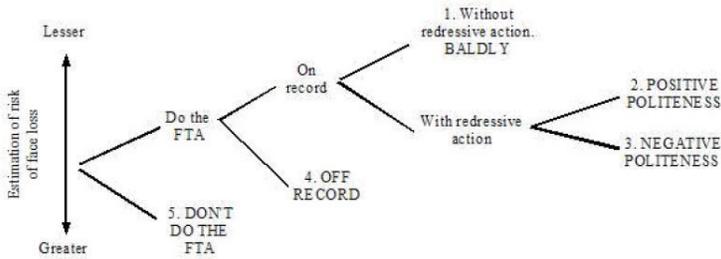
Tranquilo, ¿eh?

No, no te quites merito, Ramiro, ¿eh?

또한, 자신의 단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기능을 지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sabes?”와 대체 가능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Veo que estás muy nervioso y no me gustan los numeritos, ¿eh?

Disculpe, no sé como he podido decir esto, ¿eh?



〈그림 1: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 전략〉

명령문, 평서문, 감탄문 등과 같은 형식이 아닌 의문문 형식으로 구현되는 간접 화행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의문문 형태가 다양한 화행의 구현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손성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손성은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보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중 적극적 공손성은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화자나 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들을 의미하며, 소극적 공손성은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Brown & Levinson(1987)은 화자가 체면위협행위 FTAs(Face Threatening Acts)를 행하게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공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체면 손상하기, 적극적인 공손 전략, 소극적인 공손 전략, 암시하기, 체면 손상 행위 하지 않기이다. 적극적인 공손 전략은 상대방과의 유대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가족 호칭 사용하기, 칭찬하기, 호의적 표현 사용하기, 보상 약속하기 등이 있다. 소극적인 공손 전략은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요청 화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상대방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과하기, 허락 구하기, 주저하기, 요청의 최소화, 감사하기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분류한 각각의 화행이 의문문 형식으로 구현되는데 작용하는 공손성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확인 질문의 경우 단언적 속성과 질문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발화의 형식이나 내용이 청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

각으로 발언의 강도를 약화하여 부드럽게 말하는 기법을 취한 것이 의문문의 형식이다. 스페인어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부가의문문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Brown & Levinson(1987)은 적극적 공손전략의 하나로 영어의 부가의문문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적극적 공손성을 유지하고 공동근거의 주장에 속하면서 청자에 대한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부가의문문이다. 또한, 청자를 대화참여자로 끌어 들이기 위해 직접인용 표식을 사용하여 적극적 공손성을 드러내며, 여기에 ‘you know?’, ‘see what I mean?’, ‘isn’t it?’ 등의 부가의문문이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체면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고 할 때 부가의문문의 꼬리부분은 화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Brown & Levinson(1987)의 주장인 것이다.

확인 질문에서는 화자가 발화의 명제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있지만 청자 역시 그에 동의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청자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때 청자에게는 화자의 확신이 당연한 전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확인을 청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화된 표현인 의문문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 질문의 의문문 형식은 화자의 단언 강도를 누그러뜨리면서 부드러운 요청의 효과를 노리는 공손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감탄적 의문문은 앞서 말한 단언에 대하여, 놀람, 칭찬, 비난 등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질문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나 놀라운 사실 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므로 일종의 정표 화행(expressive speech act)로 볼 수 있다. 의문문을 통하여 표현되는 감탄은 화자의 의도를 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정도 부사와 같은 추가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흥미로운 것은 감탄 의문문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화자가 당황하거나 비난의 문맥에서 의문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칭찬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질문 형식을 취하면서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반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게끔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화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청자가 스스로 도출해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진술문보다는 강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감탄이라는 의미적 특성은 화자의 주관적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문문 형식을 취하면서 화자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화자의 주관적 생각, 느낌을 객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비난과 같이 직접적인 단언 형식을 취했을 때에 청자의 체면 손상의 정도가 매우 높은 화행의 경우 청자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열어주면서 체면 손상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 <표 5>에서 제시한 분포에서도 부정적 감탄인 비난은 212회 출현으로 11%의 출현 빈도를 보였으나, 칭찬의 경우에는 6회만 출현하여 0.3%라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요청 화행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전략들로서 실현되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크게 중심 행위(head act)와 지지 행위(supportive move)로 분류된다. 중심 행위는 다른 발화와 어울리지 않고서도 독립적으로 요청 발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발화 행위 연속 내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지 행위는 청자로 하여금 요청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설득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중심 행위의 전, 후에 위치하여 그것의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완화 또는 강화시키며, 크게 내부 수식어구와 외부 수식어구로 나눌 수 있다.

요청의 내부 수식어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 의문문이다. 의문문은 청자의 능력(Oye, ¿me podéis ayudar con esto?)이나 의지(¿No me harías una mamada?)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요청을 수행하거나 청자의 허락을 구할 때(¿Te importa que vaya a tu casa, hasta que se me pase?)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며, 요청을 받아들이는 청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손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청자이기 때문에 청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더 자주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 화행의 전략에서 청자 중심의 표현이 화자 중심의 표현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점이다.

지시적 화행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화자가 청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 부담감, 즉, 체면위협 의 강도를 낮추어 지시 화행을 수행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하여 청자에게 수락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조동사 ‘poder’가 쓰이는 것은 지시 화행의 예비조건을 의문문 형태로 언급하면서 청자가 이 행위를 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VII.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이라는 제한된 언어 형태를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화용론적 관점의 다양한 언어의 기제를 스페인어 구어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의문문이라는 하나의 유형의 발화가 화자의 생각, 주장, 느낌 등을 전달하는데 쓰이는 과정에서 화행, 적성성 조건, 함축, 공손 이론 등의 다양한 화용론적 원리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질문’이라는 기능이 중화되고, ‘감탄’, ‘비난’, ‘칭찬’, ‘명령’, ‘요청’, ‘단언’ 등과 같은 다양한 화행의 기능이 구현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제한된 형식을 통하여 다양한 화행이 구현된다는 점에서 언어 기제의 고효율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자연스러운 담화 상에서 의문문이 다양한 화행으로 구현되는 빈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의문문이라는 형식을 실제 언어 수행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외국어로서 스페인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응용 가능한데, 의문문의 다양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수요목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의문문을 단지 문법, 어휘 항목의 의문사 사용/비사용 질문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명령형과 함께 요청과 제안의 항목에서 교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감탄문과 함께 감탄과 비난, 칭찬의 기능을 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poder, importar 동사 학습 시에는 이를 활용한 요청, 제안, 권고, 허락 등의 기능도 함

게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의문문의 다양한 화행에 대한 연구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중심의 교수요목과 더불어 기능 위주의 교수요목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Vol. 11, No. 3, pp. 1-23.
- 김종현(2000), 「부가의문문 발화 행위에서 인식양태의 설정과 요청의 위계」, 담화와 인지, Vol. 7, No. 2, pp. 131-162.
- _____(200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 언어연구, Vol. 40, No. 1, pp. 123-159.
- 이한민(2010), 「한·영 의문문 형식의 간접 화행 연구」, 담화와 인지, Vol. 17, No. 2, pp. 95-118.
- 황경자(2003), 「무표지 전체의문에서의 질문의 발화수반적 가치의 지표」, 불어 불문학연구, Vol. 56, No. 2, pp. 863-894.
- 황원미(2014), 「프랑스어의 수사의문과 다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 48, pp. 329-354.
- Alba de Diego, Vidal(1994), “La cortesía en la petición de permiso”, *ASELE*, Actas IV, pp. 413-425.
- Austin,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lum-Kulka, S. y Olshtain, E.(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act Realization Patterns (CCSARP)”, *Applied Linguistics*, Vol. 5, pp. 196-213.
- Blum-Kulka, S., et al.(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mpany.
- Bravo, Diana(2004), *Pragmática sociocultural: estudios sobre el discurso de cortesía en español*, Barcelona: Ariel.
- Brown, P. & S. D.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 Morgan, J. L.(eds.)(1975),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Escandell Vidal, M. Victoria(1995), “Cortesía, fórmulas convencionales y estrategias indirectas”,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25, No. 1, pp. 31-66.

_____(1996a), *Introducción a la pragmática*, Barcelona: Editorial Ariel, S.A.

_____(1996b) “Towards a cognitive approach to polit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_____(1988), *La interrogación en español: semántica y pragmática*, Madrid: Editorial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_____(1999), “Los enunciados interrogativos: aspectos semánticos y pragmáticos”, Bosque, I., Demonte, V.(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pp. 4051-4213.

Gómez, Tania(2009), “Análisis sociopragmático del acto de habla de la disculpa colombiana”, *Segundas Lenguas e Inmigración*, Vol. 1, No. 2, pp. 38-59.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Leech, G.(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Levinson, S.(1983), *Pragmática*, Barcelona, Teide, 1989.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lacencia, María(2002), *Actos de habla y cortesía en español*, München: LINCOM studies in pragmatics.

Portolés, J.(1989), “El conector argumentativo pues”, *Dicenda*, No. 8, pp. 117-133.

Real Academia Española(2010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Libros.

_____(2010b), *Ortografía Española*, Madrid: Espasa Libros.

Searle, J.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Vol. 5, No. 1, pp. 1-23.

Trosborg Anna(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 complaints and apologies*, New York: Mouton de Gruyter.

신자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jayoungshin@yonsei.ac.kr

논문투고일: 2015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4월 21일

Corpus based discourse analysis and speech act study on oral Spanish -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Jayoung, Shin

Yonsei University

Shin, Jayoung (2015), *Corpus based discourse analysis and speech act study on oral Spanish: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types of Spanish speech acts and its politeness strategies used in interrogative sentences. For our study, we compiled a Spanish oral corpus consisting of 12,409 utterance pairs based on 9 modern Spanish movies. Based on the oral corpus, we extracted 1,962 interrogative sentences to analyze their functions in discourse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ir speech acts. We depended on the notion of felicity conditions in order to classify each speech act; as a result, we showed that Spanish interrogatives can be classified in 17 subtypes: questions, assertion, exclamatives, rhetoric questions, directive speech acts such as request, suggestion, permission, recommendation, etc. We argued that grammatical sentence types such as interrogatives, declaratives and imperatives do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ir typical function. Also, the frequency of each speech act types realized as Spanish interrogative sentences is shown. Theoretically, we applied pragmatics theories such as indirect speech act strategies, politenes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theory in order to explain the effect of adopting the interrogatives in each speech act.

Key words Speech act, interrogative sentences, politeness theory, questions, rhetoric questions, directive speech acts